東友會報

發行人 崔 載 九
編輯人 尹 天 泳
印刷人 金 東 立

發 行 所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3街26 東國大學校 內
東國大學校
同 窓 會
直 通(267)8568
交 換(267)8131～9
非 賣 品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번

本會는 同門相互間의 友誼增進과 母校發展에 기여키 위한 事業을 전개한다

「東國人의 밤」12月20日개최

下午6時「앰배서더」大宴會場서

한해를 마무리하며 再會의 기쁨을 나누게될 금년도「東國人의 밤」(임시총회겸 東國을 빛내준 同門祝賀會및 送年會) 행사가 오는12月20日(水) 오후6시부터 市內 앰버서더호텔2층 大宴會場에서 성대하게 펼쳐지게된다。지난73년부터 첫행사를 갖기시작、6년째를 맞이하는 同행사는 東國人의 단결을 과시하는 대향연으로서 작년에도 백년과 마찬가지로 임시총회에 이어 東國을 빛내준 동문축하회·送年파티·長技자랑·幸運券추첨순으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어「永遠한 友情속에 成長하는 東國」을 재확인하게된다。

이와관련 本會 崔載九회장을 비롯 文泰植 金聖涉 黃明秀 柳周馨 朴恩會부회장등이 참석한가운데 지난 10일 오후7시 金遺腹부회장宅에서 열린 會長團회의는 행사일정、축하대상자선정기준、예산확보문제、진행방법등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

이날 會長團회의는 특히 이번 행사에서 10代國會議員당선同門까지 祝賀대상자로 포함시켜 더욱 자리가 빛나도록 日程을 오는12月20日로 늦춰 개최키로하는 한편、每年 참석동문수가 늘고있는 점도 감안하여 交通편의와 收容능력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끝에 앰배서더호텔로 확정했다。

國會議員당선등에 祝賀牌

長技자랑·幸運券추첨 마련

이어 초청인사로는 鄭在覺모교總長、尹月下東國學院 이사장과 歷代총장을 역임한 白性郁、鄭斗石、趙明基 金東益、徐燉珏、李瑄根박사를 特別초청키로했다。

한편 지난 한햇동안 東國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동문과 우수 東友會활동을 한 個人및 團體등 축하대상자의 個別심사및 최종축하자확정은 다음 회의로 미루었다。

제1부·臨時總會

제1부는 臨時총회로서 경과보고와 會長人事、모교總長과 財團理事長의 축사가 있으며 이어『서로 돕고 서로 빛내는 자랑스러운 東國人像의 정립을 통해 東國中興에 이바지 한다』는 내용의「새해 결의문」을 채택、東國人의 사명의식을 드높이게 된다。

제2부·東國을빛내준 同門祝賀會

제2부는 12·12제10代國會議員 당선동문을 비롯하여 公私企業과 團體의 임원취임및 昇進、博士學位 취득、기타活動으로 東國의 명예를 떨친 동문에게 축하패를 수여、격려위로하게 된다。

또한 각급單位東友會 발전에 공이큰 支部(會) 임원에게 功勞牌가 주어지며 한해동안 가장 모범적인 活動을 해온 조직체를 優秀東友會로 표창하게 된다。

제3부·送年파티

제3부는 이날 행사의하이라이트로서 會長團과 모교總長、재단理事長이 合同으로「東國中興」이 새겨진 大型케이크를 자름과 동시에 각 테이블마다 샴페인이 터지면서 흥겨운 送年파티에 들어가게 된다。이때 오랫만에 만난 동창과 선후배간에 준비된 음식을 나누며 대화들이 여기저기에 무르익어가고、곧이어서 제4부 長技자랑순서를 맞게된다。

제4부·長技자랑

長技자랑은 동문演藝人의 特別찬조출연과 함께 4인조밴드의 주악에맞추어 노래·코메디등의 경진을 벌이게되는데 출연신청은 오는12월18일까지 本會사무국이며 入賞者에겐 소형자전거등 푸짐한 상품을 시상하게된다。

제5부·幸運券추첨

이날의 휘나레인 행운권추첨은 會長團을비롯한 任員·모교간부·重鎭동문및 각급東友會등서 협찬한 TV、자전거、각종 선물셋트등 푸짐한 상품을놓고 행운번호를 추첨하게 되는데 접수시 패용되는 네임카드번호가 행운의넘버가된다。

특히 많은量의 행운상품을가지고 진행시간을 단축하기위해 금년에도 행운상품보너스제를 적용、1위부토 00번까지의 先着入場賞、夫婦同門參加賞、地方同門特別賞外에 40年 中央佛專이전졸업자를 위한 高齡및 先輩격려賞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그밖에 행운번호추첨도 번호單位(00번부터00번까지등)로 시상할 계획으로 준비중에있다。

單位會別 參加환영

한편 會長團은 이행사를 全동문들에게 알려 참여도를 높이기위해 우편엽서발송、日刊新聞광고및「알림」란 活用、東友會報및 모교東大新聞에 사전記事化하는 한편、각급단위 東友會別단체참석 권장으로 성황을 이루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慶州大學 신설 自祝宴 盛況

"傳統있는 大學건설" 다짐

모교 鄭在覺총장초청 慶州大學신설、2部대학增科및增員 自祝파티가 지난17일(金) 오후6시 崔載九동창회장、尹月下동국학원 理事長、趙明基 金東益 전임총장등 내외귀빈과 同門·敎職員 3백여명이참석한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金翰周총무처장의 經過報告에 이어 鄭在覺총장은 이날『本大學校경주대학 新設은 建學精神과 一脈相通할뿐만 아니라 東國中興의좋은 기회로 본다』고 전제하고『어느때보다 財團과宗團、同門、교직원들의 일치단결아래 명실공히 傳統있는 大學으로 建設할 것』을천명、강조했다。

이날 崔載九회장은 慶州大學신설을 가져온 現·前총장및 교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비전있는 大學으로서 責任과 使命을 다해줄것』을 당부했다。

尹月下理事長도 祝辭를통해 『財團이 할수있는한 최선을 다해 宗團의 協助를얻어 慶州大學의 百年大計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파티에는 文泰植、朴恩會부회장과 金殷夏 韓沃申 閔容植 金東正등 50여명의 동문이 자리를 함께하고 모교에서 奉仕하고있는 敎職員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警察行政科,「선후배의 밤」개최

2日, 선후배 유대강화등 모색

警察行政學科「선후배의 밤」행사가오는2일(土) 오후5시부터 모교 복지회관에서 열린다。

警行科東友會와 모교警行科가 공동주최한 이날 모임의 제1부는 東友會 임시총회로서 基金모금、會則확정、선후배유대방안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어 제2부는「선후배의 밤」순서로 警行科졸업생환송회、在學生 카니발및「선후배와 함께」등의 프로그램으로 엮어져 게임및 장기자랑으로 선후배간의 유대강화를 꾀하게 된다。

「東國人의 밤」개최公告

多事多難했던 戊午年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會員相互間의 친목과 全東國人(同門·敎授·職員)의 大同團結을 도모하기위해「東國人의밤」행사를 다음과같이 개최하오니 주위에 두루 알리어 많은 參席바랍니다。

日 時=一九七八年十二月二十日(水) 오후6시
場 所=앰배서더호텔2층 (퇴계로5가→장충공원中間)
會 費=3、000원
案 件=一部·臨時總會
二部·東國을빛내준 同門祝賀牌증정
三部·送年파티
四部·長技자랑
五部·행운권추첨

※其他 자세한것은 本會사무국((267)8568)으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78年 月

東國大學校同窓會
會長 崔 載 九

발전 永久不變同窓會 萬古成長東國人 단결

도서출판 載東文化社 대표 宋載、東
도서출판 孝鍾社 대표 趙炳善
월간英文「外交」(Diplomacy) 발행인 林德圭
월간 縫製界社 代表 沈春燮
월간 法輪 발행인 朴完一
도서출판 汎友社 대표 尹炯斗
월간 嶺友俱樂部 대표 裵鍾大
도서출판 東西文化院 대표 尹上允
美洲生活研究院 원장 金奎滿
도서출판 總和閣 대표 金喜午
월간 골프界 대표 金吉雄
韓口言語文化院 원장 金良瀨

"民族私學의 矜持발현"

慶州大學 開設의 意義

모교 鄭在覺총장은 慶州大學 開設에 즈음「本校는 佛敎精神을 建學理念으로하는 特有한 傳統을갖는 大學으로서 民族文化의 源流로서의 慶州文化圈과는 不可分의 정신적유대를 갖고있으며、이곳에大學을 設立한것은 단순한 外的擴張이상으로 큰 民族文化史的의의를 갖는다」는 內容의 경주대학설치意義를피력、全東國人의 각별관심을 환기시켰다。

總長 鄭在覺 박사

금번 본교의 慶州대학이 新設된것은 이미 알려진바와같이 東國人모두가 경하해야할일이다。여기에 그緣由를 더듬어 보는것이 모처럼탄생한 이대학의 意味와使命을 밝히는데 도움이되리라 믿는다。

본교가 慶州大學을 開設한것은 물론 널리보아서 在京大學들이그 발전의 한계에 도달한것을 자각하고 그活路를 개척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임을 否認하지않겠다。적어도 지방으로의 탈출구를 마련하지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일종의 절박감이 본교의 운영자들의 눈을 서울로부터 돌리게한 動因이기때문이다。사실 지방에分校를 설치했거나 또는 설치하려고 企圖하고있는 서울의 모든綜合大學의 경우와같이 본교도 처음에는 근접지역에 그 分身을布置해 보려는 시도가 없었던것은 아니다。이것은 다만 經營上의편리라는 營利主義에서뿐만 아니라 本據地를 멀리떠나는데대한 본능적인 불안감같은것이 작용했을런지도 모를일이다。

建學정신 旗幟로 不二關係

밀착된 精神的 유대감 기대

그러나 본교의 그러한시도는처음부터 他校의 움직임에 유발된 일종 被動的인 느낌으로서 별다른 알찬노력이 뒤따르지않았다。흐지부지 未遂에 그치고만것은너무나 당연했다。이러한미지근하고 意味模糊한 서막이내린 然後에본교의 探索眼은 껑충뛰어서 멀리 慶州로 비약한다。그리고 거기에 머문채 떠나지않았던 것이다。틀림없이 東國大學校는 이곳을 安住의 福祉로 完定한것이다。생각하면 서울의 어느대학도 감히慶州는 그들의 분교설치의 대상으로 착안하려고 하지않은데 반해 오직 동국대학교만이 이곳을 택한것은 다만 경영상 採算上이유만으로서는 설명될수없는것이다。그이상의 정신적 유대감같은것이 작용한것이 틀림없다。東國大學校의 경주에의매혹은 마치 에베레스트의 최초 등산자인 힐라리경이 말한「그것이 거기에 있기때문」이라는 식이었다。말하자면東國大學校와 경주와의 相互吸引作用이야말로 동국대학교의 경주대학설치의 가장두렷한 要因이라고 볼수밖에없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東國大學校가 設立된것은 바야흐로 나라의 存立이 風前의 燈火처럼 위태로왔던 시기다。西洋帝國主義列强과 그走狗였던 日本이 파치한 貪慾을 韓半島에 겨냥하고 있을 때였다。

그들은 벌써 三綱五倫의 倫理觀과 封建的生産樣式에 젖어있는「隱者의 나라」로서는 대항할수없는 상대였다。資本主義的生産體制와 그生理는 이해시킬수있는 근대문화의 교육만이 이에 대결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것이다。

東國大學校가 근대교육을 표방하고 고고의 소리를 울린 것은 바로 이러한 時代的要請 때문이었다。말하자면 동국대학교의 出現은 바로 自衛手段으로 발동된 민족의 渴仰에 응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돌이켜보건대 慶州는 新羅千年의 古都이다。한덩어리의 돌、한줌의 흙에서까지 新羅人의體臭를 맡지않고서는 나그네가 견딜수 없는 곳이 바로 慶州다。

그러나 경주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얼이 깃들어 있는곳이다。최초의 국가통일、「民族」의 成立은 이곳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統一文化의 華麗한 開化는 이곳의 에네르기가 그源泉이 되었던 것이다。이문화는 佛敎와의 융합에의하여 더욱 순화되고 불교는 또 外敵의 침략을 물리치고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유지하려는 新羅人의 강인한 情熱에依하여 護國佛敎의 두드러진 色彩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불교는 民族宗敎내지 國敎로 화하고 민족문화는 불교문화로 화하는 不二의관계가 여기에 이룩되어 신라문화는 불교의 이해없이는 접근할수없게 되고 경주는 佛都로서의 面貌가 躍如하게되었다。이렇게 볼때 불교의 旗幟아래 근대교육을 표방하는 동국대학교가 경주를 2分身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東國大學校 自身이라고 보는것이 옳을런지 모르겠다。

아뭏든 東國大學校와 경주와의 악수를 계기로 民族文化의 르네상스가 이땅에 開化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어느때 보다도 간절하다。

東友 提言

뜨거운 握手로 東友愛 꽃피우자

成 正 基（51政治·豊川化纖(株)代表理事）

또 한해가 저물어 간다。거리에는 벌써 歲暮의 風情이 나돌고 있다。이렇게 찬바람이 일고 어깨가 움추려지는 季節이 오면 뭔가 아늑한 故鄕같은 곳이 문득 생각나기도 한다。뭔가 하나의 일이 마무리 질때 옷깃을 여미게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이렇게 포근한 고향에의 지향은 人間의 歸巢本能인 것일까。매년 이렇듯 흰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때면 옛날의 일들이생각남은 筆者만의 값싼感傷일까。

물론 故鄕이라하면 여러가지의 意味가 내포되어 있다。文字그대로의 地理的인 故鄕으로 地緣을 우선 떠오르게 된다。하지만 人間이 일정 條件下에서 選擇하고 自己進路의 한 里程으로서의 學的 故鄕을 결코 가볍게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地理的故鄕은 本人 意思에 따라 取捨選擇할 수 없지만 學問의 고향인 學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때문이다。이에「故鄕중의 故鄕」으로서 學校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하물며 眞理를 기반으로 하여 自我의 完成과 人格도야의 터전이될 大學의 경우는 췌언할요치 않는다。

○ ○ ○

筆者가 母校 東國大學에서 젊음을 구가하며 浩然之氣를 익히던 때가 벌써 30여년이 지났다。생각하면 十年一昔이라면 세번츰 山川이 변했을 세월이기도 하다。우리가 入學할 당시만해도 8·15광복 직후로 새로운 國家의自主國民이된다는긍지와自負心이풍만하던 때였다。당시 母校에는 政經學部가 신설되었는데 第1回로 入學할 榮光을 차지하게되었다。하지만 해방직후의 혼란은 곧大學이〈眞理探究의 殿堂〉만으로서 존재하기를 허락치 않았다。混亂한 社會질서와 특히 左右翼의對決등 모든것이 요즈음과 같이넉넉하고 훈훈한 분위기는 아니었다。學窓生活의 不運은 그것만이 아니었다。卒業을 앞두고 民族의 恨인 6·25전쟁이 발발된 것이다。당시 학생들은 祖國守護의使命感을 깊게 깨달아 冊을 덮어놓고 自進入隊하여 총을 들고戰場도 가지 않았던가。

생각할수록 흐뭇하고 반면 쓰라린 추억의 한장면들이기도 하다。學窓生活의 그진지하고 情感넘치던 그 옛시절은 다어디로 갔는지。그때 熱講을 하시던 교수님들、그리고 막걸리잔 하나를 놓고 人生과 學問을 論하던 친구들은 모두 어디를 갔는지。이겨울 세밑에서 곰곰히 생각해 본다。

祖國의 混亂이 점차 숨을죽이고 社會와 大學도 安定되어 갔다。그도 30년。이제 祖國은 눈말만큼 급성장하여 戰後의 쓰라린 상처를 말끔히 씻고 번영의 先進大國에로 발돋움하고 있지않은가。물론 나라가 안정하면서大學社會도 저의 길을 밟아가게되었다。母校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 言筆稱 世界속의 大學으로 부상、民族私學의 先頭走者로 달리고 있지 않은가。

最近엔 校勢의 확장과 아울러 慶州大學의 新設등 모교는 날로 비약을 거듭하고 있음을 보게된다。다만 현재의 발전에 一寸의 만족감은 禁物일 것이다。開校70주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이정도밖에 발전치 못했는가 하는 일종의 自愧心이 들기 때문이다。따라서 學生·敎職員·財團은 물론 全東國人 여러분의 끊임없는 분발만을 빌 뿐이다。

◇成 同 門

70여 星霜의 母校 東國大學校의 그 위대한 이름을 위하여 금년 한해는 무엇을 이룩했는가。우리 모두가 조용히 생각해 볼 일이다。또 한해가 저물어가는데 말이다。多事多難했던 戊午年도 점차 기울어져 가는데 금년「東國人의 밤」행사는 더욱뜻이 깊다고 하겠다。發展하는 祖國속에 發展하는 東國의 면모를 각자 확인키 위한 同門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73년 부터 시작된「東國人의 밤」에 거는 기대는 자못크다하겠다。나날이 바쁜 日常生活속에서 모처럼 이렇게 1年에 한차레 자리를 같이 하는「東國人의 밤」에 全同門 모두가 참석、더욱 뜻깊은 〈發展 東國〉의 위대한 前進에 아낌없는 참여를 부탁하고 싶다。

너무나도 유명한 케네디大統領의 취임연설이 떠오른다。곧『정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 줄것인가를 묻지 말고 국민 각자가 정부에게 무엇을 해 줄것인가』를 물으라면 一喝 말이다。너무나도 自明한 이야기이다。母校가 우리 同門에게 해줄것을 바라기보다 全同門이 母校에 무엇을할수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자。

그렇게 될때 東國은 名實相符한 世界속의 東國으로서 위용을 떨치게 될 것이다。

지난 젊은 시절의 學窓을 생각하며 금년 戊午年의「東國人의 밤」은 더욱 화기애애하고 來日의 東國을 위한 빛나는 자리가 될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기울어가는 한해를정리하도록하자。

1979年度
東國大學校（各大學院 學生募集）
大學院（男女）學生

一、募集學科및課程（博士및 碩士課程）
㉮碩士課程＝佛敎學科 哲學科 印度哲學科 國語國文學科 英語英文學科 史學科 演劇映畫科 數學科 物理學科 化學科 統計學科 法學科 政治學科 行政學科 警察行政學科 經濟學科 商學科 地理學科 經營學科 農學科 林學科 農業經濟學科 應用生物學科 電子工學科 電氣工學科 土木工學科 建築工學科 高分子工學科 化學工學科 食品工學科 工業經營學科 體育學科 家政學科
㉯博士課程＝佛敎學科 哲學科 國語國文學科 英語英文學科 史學科 數學科 物理學科 化學科 生物學科 法學科 政治學科 經濟學科 農學科 林學科 農業經濟學科 食品工學科
二、願書交付및 接受…一九七八年十一月二〇日（月）~十一月三〇日（木）
三、銓衡日字및 場所…一九七八年十二月九日（土）午後二時本大學院
四、銓衡方法…筆答試驗및 面接
▲석사과정＝전공·영어 ▲박사과정＝전공·영어·제2외국어（獨·佛·中國語·漢文택일）
※其他詳細한 것은 本大學院 敎務課에 問議할것
電話·交(260)8131~9（구내215）
直(260)3256

行政大學院（男女 夜間）學生

一、募集課程및學科…碩士課程및 研究課程
行政學科…組織管理 人事行政 財務行政 計劃行政 都市行政 開發行政 各專攻
安保行政學科…公安行政 國防行政 防衛産業 安全管理 各專攻
敎育行政學科…敎育行政 專攻
二、願書交付및接受…一九七八年十一月二十日（月）부터 十二月一日（金）까지
三、銓衡日時및場所…一九七八年十二月二日（土）午後二時 本大學院
四、銓衡方法…書類銓衡및 面接
五、特典…①公務員全員（敎員、軍警포함）에 奬學金支給함 ②其他 考試奬學金、優等奬學金、總長奬學金、女學生奬學金등 特典있음
電話（直）(260)8574 （交換）(260)8131~9 (260)8141~5（218）

經營大學院（男女 夜間）學生

一、募集課程및 專攻＝碩士課程및 研究課程
人事·勞使 管理 專攻 貿易學專攻
生産 管理 專攻 保險管理專攻
市場 管理 專攻 電子情報處理專攻
財務·稅務·會計專攻 證券分析專攻
二、銓衡方法＝書類銓衡및 面接
三、願書交付및 接受期間＝一九七八年十一月十五（水）부터 一九七八年十二月十五日（金）까지
四、銓衡日字＝一九七八年十二月十六日（土）午後二時
五、銓衡場所＝本經營大學院 敎務課
六、特典＝①貿易專攻者는 一年 修了後 貿易士 필기시험 科目上의 免除혜택이 있음 ②電子情報處理（EDPS）및 生産管理 전공은 本校의 컴퓨터 센터를 利用할수 있음 ③軍·警 敎育公務員및 女學生 全員에 對하여 授業料의 半額을 免除함 ④其他 各種奬學金이 있음
電話 （直）(260)8140 （交）(260)8131~9（221）（267）8141~5（221）

東國大學校

본회 事務局 運營규정안 마련

理事會거쳐 明年부터 實施

會長團會議 奬學會 조속 發足 결의

本會 사무국의 公正·圓滑한 운영을 피하기 위한 사무국 運營및人事규정細則(案)이 곧 마련될 것같다. 이는 그동안 모교 貫例와 他 대학동창회 운영원칙에 의존하여 시행하여 오던 事務局운영방침을 刷新, 本會실정에 알맞게 細則을 明文化함으로써 제도적인 合理化를 이룩하려는것으로 지난10일 會長團회의에서 이를 1차로 검토, 보완했다.

이날 오후7시 金遺腹부회장宅에서 崔載九회장을 비롯, 文泰植 金聖涉 黃明秀 柳周馨 朴恩會부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會長團회의는 또한「東國人의 밤」행사준비, 會長團분담금, 개교70주년奬學會의 조속발족등에 관해 광범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검토한 사무국運營및 人事규정(案)은 本會회칙 제22조3항에 의거 오는 79年1月중에 新年交禮理事會를 거쳐 확정한다음 明年會計年度 開始日(3月1日)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사무국운영규정(案)의 주요골자를보면 제1장총칙, 제2장 組織과 業務, 제3장委任專決, 제4장 慶吊, 제5장 會計와 豫算, 제6장 決算과 監査, 제7장單位組織管理, 제8장 褒賞, 제9장 東友會報및 附則으로 짜여져 있다.

또한「人事管理의기준確立으로 業務能率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人事규정(案)은 제1장 총칙, 제2장任用, 제3장 身分保障, 제4장 服務, 제5장 昇進, 제6장 보수및 부칙규정을 두고 있다.

이날 회장단회의는「東國人의 밤」행사와 관련된 소요不足經費는 會長團分擔으로 충당키도 하고 12月20日 앰배서더2층홀로 日程을 확정했다.

이어 장학회 구성관계는 朴恩會부회장이 모교측과 협의를 거쳐 확정토록 했는데 現在까지 모금된 장학금액은本會사무국예치분2천1백25만여원(利子포함), 모교經理課예치분5백88만원(利子미포함), 모교教職員分 6백14만원(利子미포함) 등 총3천3백27만원이 확보되어있는 상태이다. 同장학회는 현재「東國人의 밤」행사의 임시총회에서 정식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위해 本會側과 學校側간에 활발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慶州支會 발기총회

20여명 會長에 鄭俊和동문

모교 慶州대학설치및 慶州학술강연회에 힘입어 오랜 침묵을 깨고 慶州·月城東友會가 지난6일 發起총회를 열어 會員相互間의 친목도모와 모교發展에 기여할 것등을 다짐했다.

현재 20여명의 회원이 파악된 동지역은 발기총회와 함께 任員선출을가진뒤, 현판식, 학술강연회지원등 당면사업을 논의했다.

▲회장=鄭俊和(57史學·월성군畜産業協同組合長) ▲부회장=김광택(삼도물산代表) ▲간사장=朴廣度(忠國實業中學校長) ▲감사=이근우(경주고속터미날 상무)

天安·天原월례회

당면事業등을논의

天安·天原支會(회장=權連玉) 10월月例會가 지난달30일 市內 天安회관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가운데 화기애애하게 열렸다.

每月월례회를 열어 友誼를 다지고고있는 同會는이날 年會費납부, 會員경조강화, 참여회원 擴大등을 논의하고 연회를 즐겼다.

淸州지부 19차 月例會

新入會員 환영식도 겸해

淸州支部(회장=權重顯) 제19차 月例會가 지난달23일 오후6시30분 市內신림식당에서 열려 회원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했다.

同支部 權會長, 朴相一부회장을 비롯한 회원20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李四龍(한국전력청주지점장), 崔範勳(淸州大교수) 동문등 4명의 新入會員환영도 겸해 한층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忠州支部 會則등補強

洪 會長등 任員선출도

忠州支部는 그동안 미비했던 활동을 더욱 촉진키위해 會則을 정비하는 한편, 회장에 洪道植(51英文·미더중) 동문을 선출하는등 任員을 보강하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全文13조로 되어있는 同支部회칙에 따르면 모교 傳統과 명예를 위한 협조및 會員相互間의 친목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기총회는 每年1月6日, 月例會는 隔月制로 하는등의 內容을 明文化하고 있는데 지난6月16日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고문=柳浩(49전문·忠州文化放送사장), 李昌熙(60法學·과수원경영) ▲회장=홍도식 ▲부회장=申大雨(60英文·애성과수원경영) ▲간사장=李鍾麟(62法學·忠州高) ▲감사=朴鍾碩(58經濟·忠州女高교감)

法曹人會

8日, 定期總會개최

法曹人 東友會(회장=黃石淵) 정기총회가 오는 12月8日 오후6시 市內태평로 舊대한일보뒤「水亭」에서 개최된다.

이날 定總에서는 在學生 후배지원방안등을 논의하며 經過報告, 任員개선등이 있게 된다.

◇沈 회장

廣州郡지회 定總

회장에 沈相守동문

廣州郡支會(회장 李光燕) 제6차 정기총회가 지난11日(土) 오후6시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읍내「여주식당」에서 열려 신임회장에沈相守(58化學·國民會議대의원) 동문을 선출했다.

廣州郡內 학사체육대회가 끝난뒤洪先基간사장 사회로 열린 이날 定總에서는 任員선출외에 회칙통과가 있었으며, 사업계획등을 논의한뒤 연회로서 선후배 同門間의 친목을 도모했다.

한편 定總에 앞서 있었던 郡內학사체육대회는 東大를 비롯 서울大 高大등 6개大學이 참가했는데, 廣州郡東友會는 入賞圈에서 탈락했었다.

◇新任會長團명단

▲고문=李光燕(51英文·南漢中高교장) ▲명예회장=朴容才(75行研·廣州郡농협조합장) ▲회장=沈相守 ▲부회장=朴周경(57經濟·만수원農場대표) 李鍾敏(63農學·국민회代議員겸主浦농협조합장) 梁順煥(63政外·國際理化工業(주)常務) ▲간사장=洪先基(73政外·金谷요업사常務), 간사=정성옥(73工經·삼광직물산업사代表) ▲감사=尹鍾安(58經濟·공인會計士), 李喜範(76行研·해군中領)

農協 78年定總

5일,「운정」에서

農協東友會(회장許良道) 78년도 정기총회겸 送年모임이 오는5일 오후6시30분 市內종로1가「운정」에서 열린다.

이날 모임에서는 經過報告에 이어 年會費 일괄납부건, 會員경조강화등 당면과제를 논의한뒤, 연회로서 회원간의 우의를 다지게 된다.

水原지부 임시모임 열어

정기總會개최등을 討議

水原支部(회장 趙正煥)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칙개정및 임원개선문제등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기위해 지난18일(土)오후4시大乘院(남창동소재)에서 임시모임을 가졌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날모임에서는 침체된 수원지부 활성화를 위한 정기모임개최, 조직강화등에 관해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회원간의 우의를 다지는 연회를 베풀었다.

忠武·統營지회도定期총회

崔載九회장도 參席

忠武·統營支會(회장=趙玄濟) 정기총회가 지난29일 오후6시 충무시내 D음식점에서 본부동창회 최재구회장및 윤천영사무국장과전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회원상호간의 우의증진 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定總에서는 회장과 부회장을 유임시키는 한편 간사장에 최영수(64經濟·원진수산충무지점업무과장) 동문을 선임했다.

仁川支部 任員회의

定總·현판식논의

仁川支部(會長=孟殷在) 임원회의가 지난 29일 會長團전원과 辛元夏 劉基棟 간사등이 참석한가운데 시내「신유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특히 오랫동안 미뤄온 同支部현판식 문제를 논의, 장소는 숭의동 로타리 동아자동차학원 건물에있는 北韓研究所경기사무소(전화③7733)에 달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시기는 定期총회시 겸하기로 했다.

또한 同支部 78년도 정기총회겸 송년회 개최문제도 논의했는데, 日程및 場所는 會長에게 위임하고 宴會로서 同門間의 유대를 다졌다.

在仁教職會

이상용同門축하도

在仁教職同門會(회장=安文玉) 이사회가 지난 19일(土) 오후2시 시내금화식당에서 15명의 임원이 참석한가운데 열려 12월정기총회 개최문제등을 논의했다.

金贊鎔간사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이사회는 文教部편수관으로 영전한 同會이상용(69·國文)부회장축하회를 겸해 기념품전달도 있었으며, 이어 本部동창회및 仁川支部와의 유대강화방안도 모색했다.

東大新聞 28周

5일, 自祝파티

東大新聞창간28주년및 同人合同出版紀念會가 東大新聞同人會(회장=金鎭福)주관으로 오는 12月5日 모교 복지회관 교수식당에서 열린다.

이날 모임은 東大新聞창간28주및 지령 7백호 自祝과 아울러 同人가운데최근 저서를 낸 宋赫(59國文·모교教養學部교수·詩集「解土」발간), 韓龍煥(67英文·小說家·소설「趙哲씨의 어떤 幸福한 아침」발간)동인과 趙演鉉(40·혜전·한양대文理大학장)동인의 축하회를 겸하게 된다.

참석범위는 평소 東大新聞 발전을 위해 힘쓴 모교 學處長및 各課長, 東國文學人, 東國言論人, 東大新聞논설위원및 고정 필자, 현직高校교사와 同人및 在學生記者가 된다.

한편 이날 自祝會를 가진다음 東大신문동인회 정기총회도 가져 任員등을개선하게 된다.

73년經濟科同期會

12月15日 送年會

69년도 經濟學科入學同期및 73年 同졸업 同期모임이 오는 12月15日 오후7시 市內퇴계로4가 大林亭에서 열린다.

每年 2~3回씩 모여 동기생 상호간에 친목을 다져오고 있는 同會는 이날 모임에서 정식적인 同期會발족을 통해 회원간의 친목강화는 물론 모교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등을 모색하게 된다.

濟州東友會 월례회 개최

玄平孝동문이 會長활약

濟州東友會(회장=玄平孝) 정기月例會가지난11일(土) 서귀포강태만(대영장代表) 동문宅에서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하게 열렸다.

매월 會員宅을 순방하며 同門상호간의 友誼를 다지고있는 濟州東友會는 濟州支部와는 별개모임으로 濟州支部발전의 후원단체가 되고 있다. 同會회원은 24명이며 지난해 9月발족되었다.

▲회장=玄平孝(51國文·濟州大교수) ▲부회장=李相珍(58法學·남양文化放送업무부장) ▲理事=高眷皓(53國文·삼양기업사社長) 金榮柱(58法學·서울地檢) 임태호(濟州實專교수) ▲간사장=高昊湖(60經濟·서울신탁은행 제주지점대리) ▲財務=左京熙(69食工·제주은행총무부代理)

61年經濟學科

1日, 정기총회

61年 經濟學科同期會(회장=閔瑛植) 78년도 정기총회겸 送年會가 오는1일(土) 오후6시30분 市內 풍전호텔 2층회의실에서 열린다.

化學科에 百弗

金雲峰동문

일시업무차 귀국한 金雲峰(72化學·在美실업인)동문이 化學科東友會발전을위해 써달라고 지난21일 모교에들러 恩師인 민태원교수에게 1백달러를 기탁했다.

食工科12기 추계定例會

운동경기로친선도모

食品工學科제12기(76年2月卒業)의 78년도 추계定期모임이 지난5일(日) 모교강의실및 체육관에서 열렸다.

金鍾旭(세방기업사)회장동 회원30여명이 참석한이날회합에서는 배구·농구·탁구등 운동시합과 피로연으로 동기생끼리 화기애애한 하루를 즐겼다. 한편 이날 회원주소록도 제작, 배부하여 회원들의 동정을 서로 교환하기도 했다.

材料科學研

소장職代에 洪致裕교수

材料科學研究所長 직무대리에 洪致裕(文理大·物理科)교수가 지난8일 취임했다.

經營大學院 特講

李鍾麟교수演士로

經營大學院(원장金鍾遠)의 한경특강이 지난 13일 李鍾麟(法政大)교수의「知性과 經濟人의 사명」이란 연제로 본관 종합세미나실에서 열렸다.

教職員 정기法會

全觀應스님法師로

正覺院(원장=李智冠)주최로 교지원정기法會가 지난10일 오후2시 全觀應스님을 法師로「唯識」이라는 연제하에 正覺院법당에서열렸다.

동문著書안내

隨筆集「내가 살아가는 人生」

趙 演 鉉 동문

趙演鉉(40惠專·漢陽大文理大學長·현대文學主幹)동문이 그의 생활주변 이야기를 무기명으로 썼던 新聞칼럼등을 모아서 수필집「내가 살아가는 人生」을 내놓았다. 5부로된 이책의 마지막부는 柳致環, 노천명, 양주동, 金末峰씨등 작고문인에 대한 얘기저얘기를 담았다. 趙동문은 文協理事長을 지냈으며 文壇의 중견평론가로도 활약중이다(태창출판사刊·1천2백원)

장편소설「幻想의 城」

金 文 洙 동문

金文洙동문(62·國文)의 장편소설「幻想의 城」이 大光出版社刊으로 나왔다. 61년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異端復興」이 당선, 문단에 첫발을 내딛은이래 제21회 現代文學賞을 수상(75년)한바 있는 金동문은 단편집「바꿔놓고 생각하기」(聖痕改題)「이상한 土요일」과 중편집「燕猫·迷路學習」외 다수의 작품을 내놓고 있다.

「幻想의 城」은 중편소설「육아(肉芽)」(한국문학·78월4월)를 장편으로 改作한것.

洪起三교수는 해설에서「이 作家는 편협하지 않다. 선험적으로 예술가적 상상력을 타고 났으면서 그것이 사회적 관심으로 나타날때는 날카로운 풍자를 통해서 현실비판의 칼이 되기도 한다. 또 풍속적인 것이나 내면탐구가 되는 경우는 그의 긍정적인 인간관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大光出版社·309面·값1천3백원)

戱曲集「외줄위의 분장사」

金 淑 賢 동문

金淑賢동문(68·國文)의 첫 희곡집(외줄위의 분장사」가 한겨레 희곡선집 첫번째 책으로 나왔다. 76년 장막극「바벨塔 무너지다」의 공연과 다음해 현대문학誌의「추천완료」로 문의 발표작품「男女3악장」등 12편이 실려있다.

金동문의 작품세계를 趙演鉉씨는 女性들의 델리케이트한 心情이나 심리가 곧잘 파악되어 있으며 가정과 사회와의 사이에서 야기되는 여러가지 갈등 같은것이 썩 잘 표현되어 있다」고 평하고있다. <한겨레共版社·310面 값1천8백원>

수필집「臨津江」

尹 大 二 동문

尹大二(法名=禪曉·76·僧伽)동문이 時調集「臨津江」을 내놓았다.

지난 77년 朝鮮日報 신춘文藝 時調당선으로 文壇에 데뷔한 바 있는 尹同門의 同時調集은 제1부 祖國, 제2부 그래도 못다한 念願, 제3부 自然과의 對話등 50여편의 作品을 담고 있는「燃燈」「햇불」「黎明」등 尹同門의 作品世界는 불교의 慈悲와 불타는 祖國愛로 一貫되어 있는것이 특징중의하나다. <韓振出版社刊·값1천원>

「땀으로 얼룩진 발자취」

金 洋 一 동문編著

金洋一(63·政外·한국編輯記者會사무국장)동문이 새마을 지도자 1백명을선정 逆境속에서 苦難을 克服하고 일어선 그들의 숨은 에피소드와 사연을 엮은 體驗談을 묶은 것이다. 오늘의 農村실상이 담겨있는 同편저는 좌절하지 않는 인간의 단면도 엿보여주고있다. <새마을지도社刊·값3천6백원>

「金배지」向方좇는 東國人의 집념

오는 12月12日의 제10대 國會議員총선거 입후보자등록이 지난29일로 마감됨에따라 金뺏지의 向方을 좇는 東國人의얼굴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총77개선거구에서 1백44석의 選良을뽑는 總選레이스에 참가하고 있는 東國人은 총23명으로 本會에 집계되었다。여기 지난30호에 이어 소개되지않았던參戰동문들의 프로필을 살펴본다。

◇朴敬熙동문

◇朴龍龜동문

◇呂寅泰동문

◇林德圭동문

◇朴榮植동문

◇金鶴奎동문

◇金木鎬동문

◇新民黨◇

▲高炳鉉（59經濟）

신설구인 江西에서 제1야당후보로 픽업된 高동문은黨內선전부국장、총무부국장、조직국장을 차례로 역임한黨要員출신。민정회중앙본부총무부장、新民黨中央상무위원、同서울市黨紀위원장、同서울市黨부위원장을 지낸 高동문은 在學時 전국학생연맹중앙집행위원으로 활약했으며、아가페總販(주) 상무、전무、동화상공(주)상무、동성기업사대표、한국군납수출조합감사등을 맡아왔다。

◇民主統一黨◇

▲朴龍龜（53史學）

新民黨공천에 실패、民主統一黨으로 당적을 옮겨서라도 기어히 월계관을 차지하겠다는 朴동문은 일생을 野黨과함께살아온 끈질긴 野黨鬪士。52년 총학생회장을 지낸바있는 朴동문은 野黨의主脈인 民主黨、民衆黨、新民黨의 順天·昇州·求禮의 지구당책임자로 활약했으며、新民黨전국구후보및 9代출마경력등을갖고있다。

▲呂寅泰（56政治）

오랜 政黨생활끝에 釜山中區·影島에서 지역구출마는 處女출전인 呂동문은 지난8대때 國民黨전국구후보로도 부상된바있는 意志의政治후보생。

呂동문은 한국사회黨경남간사장、民政黨발기인지구조직위원、國民黨정책연구실장、統一黨국제국장및黨務局長을 거쳐 統一黨釜山中區·影島지구당위원장으로 활약하고있다。

▲朴榮植（61政治）

8代때 新民黨공천으로 出馬했다가 失敗。三千浦晋陽·泗川에서 다시 입후보한 朴同門은 在學時 민족호국학생연맹전국학생위원장및 4·19국가혼란수습위원을 지내는등 무게있는 학생활동을 통해 이미 修身齊家한 박력있는 政治지망생。

서울화물센터번영회장、新民黨경남제2지구당 부위원장및 同위원장과 故柳珍山당수특별보좌관등을 역임했으며、現在 약국도 경영하고 있다。

◇高炳鉉동문

◇李鍾敏동문

◇安柄達동문

◇愼順範동문

◇金吉雄동문

▲安柄達（61政治）

10여년전인 지난 67년 제7대때 입후보 경력을 갖고있는 安同門은 正義투쟁으로 일관해온 執念의 4·19세대。

4·19때 관통상을 입어 2개월여를입원한바있는 安同門은 사단법인全國4·19革命부상동지회장、조국수호국민협의회창립위원、한국사회사업대학강사를 거쳐 영천중부교회시무長老등으로 활약하고있는데 浦項·迎日·永川·鬱陵지역에서 得票기반구축에 奔忙。

◇無所屬◇

▲朴敬熙（70行研）

한국反共聯盟 道峰[illegible]部長으로 활약하면서 [illegible]人關係폭을 넓혀온 朴同門은 本會부회장과 行政大學院동문회장등을 역임해 同門社會에선 이미 잘알려져 있는 人物。

朴同門은 평소에 前方및 불우이웃·養老院위문등과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오고 있으며 현재 敬熙商社대표로 있다。

▲林德圭（60法學）

公州·論山지역 共和黨공천을 신청했다가 뜻을 못이룬 林同門은 그동안 닦아온 지지기반을 得票로서 과시하겠다는 政治入門초년병。

모교와 西江大강사로、新亞日報및 同和通信논설위원으로、世界國際法協會한국본부부회장등으로 활약한 林同門은 자신이 경영하는 月刊英文「外交」誌를 통해 이미 有名稅를 안고있는 民間外交街의 기린아。

즉 토인비및 林語堂、마르코스、인디라 간디등 世界의 碩學및 政治人과의 단독對話가 그것이며 林동문은 특히 한국의 孝思想앙양론자이기도 하다。

▲李鍾敏（60法學）

政治보다는 地域社會발전과 企業一線에서 더많이 활약한 李同門은 현재 모교 行政大學院에도 籍을두고있는 學究派。

江南區에서 후보등록을 마친 李同門은 동성교통常任감사、삼영교통理事(現)등 운수업계와 모성산업會長、삼호체육관장、강남평화장학회위원등 다방면에걸친 활동으로 力量을 발휘해오고있다。

▲金鶴奎（61政治）

高等考試行政科를 合格、하고 초대 李始榮부통령비서를 역임한 金同門은 서울마포에서 民議員 출마、一線경찰서장、醫師、[illegible]장교등 케리어가 비교적 다양한편。原州·洪川·橫城·原城에서 獄中出馬로 孤軍奮鬪하고있는金同門은 예비역 陸軍중령으로 慶州경찰서장을 거쳤으며 現在 카톨릭醫協감사와 金鶴奎의원(원주시中央洞소재) 원장으로활약하고있다。

▲愼順範（62政治）

9代때 麗水·麗川·光陽지구에서 출마한데다가 4·5·6代國會議員비서관까지 지냄으로써 選擧와 議政의 生理를 누구보다 잘알고있는 愼同門은 群衆을 사로잡는 뛰어난 웅변술까지 겸비한 才士。在學時 모의국회에서 총장상을받기도한 愼同門은 全國雄辯총본부이사장、全國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수석부회장、서울市상입홍보위원、뉴서울슈퍼마켓번영회장、현대언어학술회장등으로 활약、폭넓은 경륜을 쌓아 오고있다。

▲金吉雄（70政外）

서울 城東에서 靑雲의 꿈을 품고 與野중진대결장에 도전한 金同門은 평소에 관내 중고교에 장학금과 養老院위문등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와 이지역에 知面을 익혀온 政治초년생。

共和黨 地區黨요원으로 활약、政黨생활을 익히기도한 金同門은「골프界」대표、태광특수공업상무、자양슈퍼마켓代表등 사업인으로도 착실히 力量을 기르고있다。

▲金木鎬（78行院在）

대한부동산거래협회 理事長겸 (주) 정우주택공사대표로 활약중인 金同門은 현재 모교 行政大學院총학생회 부회장으로도 力量을 발휘해오고 있는데、冠岳區에서 東奔西走中。

其他

이밖에 本會에서 미확인、또는連絡이안되었으나 日刊신문에 보도된 同門을 보면 ▲辛敏善（寧越平昌·旌善·無·新民조사부장） ▲全年圭（報恩·沃川·永同·無·農協기획실장） ▲李尙玟（晋州·三千浦·晋陽·泗川·無·회사副社長） 등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제10대 國會議員입후보 同門

道別	姓名	卒業區分	政黨別	地域區
서울	金濟萬	54史學	新民	城東
	金吉雄	70政外	無	〃
	朴敬熙	70行研	〃	道峰
	金木鎬	行院在	〃	冠岳
	李鍾敏	60法學	〃	江南
	高炳鉉	59經濟	新民	江西
釜山	呂寅泰	56政治	統一	中·影島
京畿	金殷夏	52政治	新民	仁川
	金日秀	76行碩	無	水原·華城
江原	金鶴奎	61政治	無	原州·洪川·橫城·原城
	辛敏善		〃	平昌·寧越·旌善
忠北	崔 極	60英文	新民	報恩·沃川·永同
	全年圭		無	〃
忠南	林德圭	60法學	無	公州·論山
全南	愼順範	62政治	無	麗水·光陽·麗川
	朴龍龜	53史學	統一	順天·昇州·求禮
慶北	安柄達	61政治	統一	浦項·永川·迎日·鬱陵
慶南	朴榮植	61政治	統一	晋州三千浦·晋陽·泗川
	李尙玟		無	〃
	崔載九	52國文	共和	忠武·統營·巨濟·固城
	崔炯佑	63政外	新民	蔚山·蔚州
	金相碩	70行碩	共和	宜寧·咸安·陜川
	金東英	60政治	新民	咸陽·山淸·居昌

※위 명단은 本會사무국및 日刊新聞紙上을 통해 파악한것임。

※政黨別 입후보자數는 共和 2, 新民 6, 統一 4, 無所屬11명으로 總 23명임。

연건평4만여평터미날着工
本會副會長등 다방면 활약

金 遺 腹
<江南高速버스터미날 社長>

光東學園 신축校舍 준공
布敎·育英사업등힘써

慶 石
鐵鋼사장>

任되었다。

철도청에 오랫동안 奉職해온 李동문은 春川驛長、水原驛長、永登浦驛長등을 차례로 역임해온바 있다。

月刊文學新入賞으로詩壇에
"本格的인 詩作위해 노력"

蔡 洙 永
<祥明女高교사>

蔡洙永(55國文)동문이 月刊文學12月호

韓國投信 東部支店長으로
李 義 邦

李義邦(55法學)동문이 韓國投資信託(주)東部지점장으로 轉任되었다。李同門은 同社의 운용부장、기획조사부장등을 역임했으며 同社東友會長으로도활약중이다。

詩文學誌薦了로 詩壇데뷔
66년1회추천후 12년만에

玹

文

당에서 화촉。

▲李丙和(61經·榮進公社상무)‖11月26日오후1시 종로예식장에서 동생 丙先양 화촉。

移轉·開業

▲李斗世(61政治·오성공업사代表)‖사무실및공장을 市內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의1번지로 이전。

▲李君明(63法學·國一證券公平支店長)‖사무실이 市內종로구公平洞68~3 和信

결 同法書士회관3층으로 이전。

一九七九學年度（後期）

東國大學校
新入生(男女)募集요강

一、모집학과·정원·고사과목

大學	學科	定員	試驗科目 必須	試驗科目 選擇
佛敎大學	佛敎學科	二〇	國語(Ⅰ) 英語	數學(Ⅰ) 國史 擇一
	哲學科	二〇		
	印度哲學科	二〇		
	僧伽學科	二〇		
文理科大學	國語國文學科	三〇	國語(Ⅰ) 英語	數學(Ⅰ) 國史 擇一
	英語英文學科	三〇		
	史學科	二〇		
	數學科	三〇	國語(Ⅰ) 英語 數學(Ⅱ)	
	物理學科	三〇		
	化學科	三〇		
	統計學科	三〇		
法政大學	法學科	二五	國語(Ⅰ) 英語	數學(Ⅰ) 國史 擇一
	政治外交學科	二五		
	行政學科	二五		
	警察行政學科	三〇		
	都市行政學科	四〇		
經商大學	經濟學科	三五	國語(Ⅰ) 英語	數學(Ⅰ) 國史 擇一
	貿易學科	三五		
	經營學科	四〇		
	電子計算學科	四〇		
	會計學科	三〇		
農林大學	農學科	三五	國語(Ⅰ) 英語	數學(Ⅰ) 國史 擇一
	林學科	二五		
	農業經濟學科	三〇		
	農業生物學科	二〇		
工科大學	電子工學科	四〇	國語(Ⅰ) 英語 數學(Ⅱ)	
	電氣工學科	三〇		
	土木工學科	四〇		
	建築工學科	四〇		
	化學工學科	三〇		
	食品工學科	三五		
	工業經營學科	二五	國語(Ⅰ) 英語	數學(Ⅰ) 國史 擇一
師範大學	敎育學科	三〇	國語(Ⅰ) 英語	數學(Ⅰ) 國史 擇一
	國語敎育科	三〇		
	社會敎育科	三〇		
	國史敎育科	四〇		
	家政敎育科	三〇		
	數學敎育科	二五	國語(Ⅰ) 數學(Ⅱ) 英語	
二部	社會開發學科	四〇	國語(Ⅰ) 英語	數學(Ⅰ) 國史 擇一
	經濟學科	四〇		
	貿易學科	四〇		
	經營學科	四〇		
	(이상新設)			
	電子計算學科	八〇		
	會計學科	八〇		
	工業經營學科	三〇		
藝體能系	美術學科	三〇	實技	
	演劇映畵學科	二〇	國語(Ⅰ) 英語 實技	
	體育敎育科	三〇		

二、지원절차·전형기간

㉮전형기간
①필답고사 1979년2월8일(木)
②면접·실기 1979년2월9일(金)
③신체검사 1979년2월9일(金)
④합격자발표 1979년2월17일(土)

㉯원서교부및 접수
①교부 1979년1월8일(月)~2월5일(月)
②접수 1979년1월29일(月)~2월5일(月)

㉰교부및 접수처 본교 교무과

㉱수험생예비소집 1979년2월7일(水) 오후2시 본교 운동장

本大學校 慶州大學（前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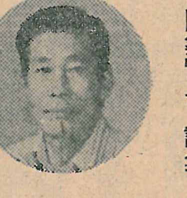
162브럭 대지 2만9천평에 연건평 3만6천25평의 地下1층 地上8층 규모로 건설되는 同터미날 착공식을 가졌다。

오는 80년11월말 준공예정인 同터미날은 대합실 4천1백50평、사무실 1천3백평、주차대 4천2백84평、고속버스주차시설인 泊車場 1만2천5백평、기타부대시설 3천1백72평으로 되어있다。또한 62개소의 버스승차대도 설치된다。

金同門은 예비역將星으로 서울시在鄕軍人會長、韓·印尼協會長、학교법인 東國學院監事등으로도 활약이 크다。

제15회 韓國文學賞 수상

「鬪鷄」등 詩集5권 發刊


具 慶 書
<同德女中高 교사>

具慶書(49專門·同德女中高) 동문이 韓國文人協會가 매년 最優秀작품을 골라시상하는 제15회 한국문학상을 수상했다。수상작품은 具동문의 第5詩集인 「鬪鷄」로서 「한국문예진흥원」우수작품으로 선정되어 同출판기금지원으로 발행된작품이다。시상식은 오는12月下旬 市廳강당예정。

45년 同人誌 白脈을주간、小說「曲」을 발표한바있는 具同門은 詩로 전향한以來 51년 첫시집 「爆音」을스타트로 57년「回歸線」、66년「鹽田地帶」、72년 田園交響曲」등 5차례나 詩集을 내놓는등 왕성한 詩作활동을 보이고있다。

具동문은 禮山農高、江景商高、天安女高를거쳐 現同德女中高에 재직중이며 한국文人協會이사로도 활약중이다。

同門動靜

<無順·敬稱略>

本人의 近況이나주위同門들의 諸소식등이있으시면 언제든지 提報바랍니다。

黃慶石(72行碩·鮮進철강 社長) 동문이 이사장으로 있는 光東中·山林高의 학교법인 光東學園의 신축校舍준공식이 지난 18일 오전10시 경기도 양주군진접면 장현리 同中高교정에서 있었다。

지난5월 同학원을 인수、이사장에 취임、교사증축을 서둘러온 黃同門은 대한불교三寶法會회장、黃恩장학회장으로布敎와 育英사업등 사회사업에 기여해오고 있으며、鮮進철강을 母企業으로 선진기업、선진건설의 會長등 실업인으로서도 力量을 발휘해오고 있다。

蔡同門의 詩를 薦擧한 李東柱 章湖씨는『용모한 4편의 詩가 고루 안정감이 있고 약간 거친데가 있지만「포에지」가 몸에 배어있어 수상작으로 한다』고 추천소감을 밝히고 있다。

그간 習作정도에 그쳤던 詩作생활을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결의를 보인 蔡同門은 현재 祥明女高에서 교편을 잡고있으며 夫人 吳明根(65國文·本會理事)동문도 江南中에서 교편생활을 하는 夫婦敎師다。

「아모레」 경홍特約店개설

本社서 제도판매사령탑도

池 喜 永
<太平洋化學경홍특약점代表>

池喜永(59哲學) 동문이 市內강서구登村洞에서 太平洋化學화장품대리점인 아모레경홍특약점을 개설했다。

太平洋化學의 영업1·2부장과 판촉부장등 영업세일의 사령탑역할을 담당하면서 익힌 경험을 토대로 경영일선에 뛰어든 池同門은 쾌활·개방된 성격의 소유자로 本會理事、태평양화학동우회부회장으로 크게 활약해온바 있다。

全州驛長으로 轉出

李 瓚 濬

李瓚濬(53法學) 동문이 全州驛長으로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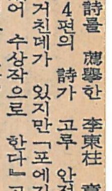
서울JC신임會長에 被選

國民會議代議員으로도활약

李 弘 卿
<뉴욕제과社長>

李弘卿(66商學) 동문이 지난달 20일 도큐호텔에서 열린 서울JC 10月월례총회에서 신임會長에 선출되어 오는새해에 正式 취임하게된다。

지난5일~26일까지 日本 東京에서 열린 JCI총회 한국대표단장으로 참석、유창한 「스피치」실력을 발휘하기도한 李同門은 서울JC外務담당부회장을 거쳤으며 현재 統一主體國民會議대의원、뉴욕제과(주) 사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金 鍾
<서울地法刑院>

金鍾鉉(69法學) 동문이 詩文學誌 12月號를 통해 詩추천을완료받음으로써 法學徒답지않게 정식으로 詩壇에 데뷔했다。

66년 同誌에서 1回추천을 받은바있는 金同門은 오랜 공백기간을 가진뒤 12년만에 그 빛을 보게되었는데、이번 薦了작품은 「코스모스」와 「한밤의 넋두리」등 두편。

심사위원인 文德守 權逸松씨는 추천사에서 『그가 어느 길로 갈것인가는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지만、어느 길로 가든 자기의 土臺를 이만큼 닦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고 밝히고 있다。

金同門은 현재 서울地法 영등포지원에 근무하고 있다。

榮進·轉補

▲金卓中(51經濟)=遞信部전축사무소에서 同 經理局 경리과장으로。

▲權五一(50專門)=주문진 女商高에서 旌善綜合高等學校로。

▲金鍾哲(71經濟)=仁川市송현3동 예비군중대장으로。

▲張雄助(64經營)=太平洋化學 선전2과장으로。

▲朴在昇(72警行)=서울中區 乙支路4가 파출소장으로。

▲許應澤(73經營)=晋州商高에서의 교편생활을 청산하고 (주)大都商協 영업부차장으로。

4호로 이전。

▲李成鉉(61政治)=종로구 종로3가 18번지에 구두·핸드백 취급점인 슈즈살롱 드레곤(龍)을 신장개업。

▲李浩錫(52英文·東洋建設興業社長)=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25棟 401호로 이사。

▲나용(63法學)=仁川市 부평동 3거리에 「대원자동차학원」을 개설 원장에 취임。

▲조영대(65法學)=종로구 효제동 231번지에 해동제약 종로판매상인 松山실업을 설립코 同대표에 취임。

▲李賢子(75史學)=[illegible]구 도화동 39~2로 이전。

[illegible]

▲李容午(67警行)=서대문구 홍제1동 156~38로 이사。

▲申福永(69政外·警友新報記者)=강서구 등촌동 62~7(13통 2반)로 이사。

▲徐東浩(66法學)=서대문구 북가좌동 291~31로 이사。

▲朴商元(58經營)=[illegible] 184~2(20통 1반)로 이사。

結婚

▲李元熙(68行政·大韓佛教편집부차장)=11月20日오후1시 종로2가 서울예식장에서 本人화촉。

▲吳河東(40·中央佛專·前京東高校長)=11月18日오후3시 長男 英一군 明洞성

回甲

▲沈光輔(62物理·東大外國語教育院長)=11月19日 忠南溫陽[illegible] 자택에서 母親 回甲宴。

訃音

▲魏德政(68應生·在美)、韓鎬南(73農生)、韓京南(76農生)=11月7日父親喪。

時·論

고추波動

朴 相 一
<66大院農·忠北大學校敎授>

며칠전 이곳 淸州에도 수입고추를 판매한다는 신문기사가 있었다。고추파동이 일어난 以後로 우리집은 고추의 소비를 줄이고 있다。그런대로 아무런 不便없이 지내고있다。맵고 짠음식이 그렇게 건강에 이로울리도 없다。우리나라 1백6세의 最高齡할머니도 長壽의 비결은 맵고 짠음식을 먹지않는데 있다고 하였다。

건강상 이롭지도 않은 고추의 소비를 위해 그렇게 많은 外貨를 써야하나? 수입고추를 사기위해 그렇게 아우성을 쳐야하나?

우리가 고추의 소비를 조금만 줄인다면 이때문에 행정당국이나 개인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않아도 좋을것이다。맵게 먹는 우리의 食性을 고쳐서 고추의 소비를 줄일수는 없을까。

이름있는 서양요리나 중국요리에도 그렇게 많은 고추를 사용하는것을 볼수가 없다。고추를 많이 넣어야만 음식맛이 난다는생각을、고추를 빨갛게 넣어야 구미가 당는식성을 고칠수는 없을까。붉은 김치 대신에 흰김치를 육계장이나 매운탕 대신에 설렁탕이나 곰탕을 즐겨 먹을수는 없을까。건강에도 좋고 物資도 아끼고 家計도 늘리고 外貨도 절약하는『一石四鳥』의 効果를 거둘수는 없을까。

문제는 고추에만 있는것이 아니다。쇠고기·酒類·과자·화장품등 많은 외국소비품들이 수입되고있다。길벗·베리나인·나폴레온·드슈등의 낯선 이름들이 어느듯 귀에 익어가고있다。이같은 술들이 우리의 체질에 잘 맞을리 없을것이다。또한 우리의 손으로 빚어지는것도 아니다。단지 원액을 수입하여다가 희석해서 내어놓는것에 불과하다。洋酒가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음을 본다。洋酒가 순수한 우리의 손으로 빚어질때까지는 이들의 소비를줄이고 탁주·소주·약주·청주·맥주 따위의 우리손으로 빚은 술들을 즐겨 마시자。그렇게 마시도록 우리들 술의 질을 높이고 보호육성하자。

지난해에 우리나라는 1백억불 수출의 高地를 점령하였다。참으로 여기에는 나이어린 기능공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정이크게 담겨진 고귀한 땀방울이요、우리민족의『힘』이 아닐수없다。

국토의 개발과 건설을 촉진하는일、大都市의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하는일、생명을 앗아가는 일、무서운 公害를 방지하는 일、쌀·보리·밀·콩등의 식량의 主宗을 自給化 하는일、연탄·석유등 연료의 대책을 빈틈없이 강구하는 일、남의집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金品을 강탈하며 어린아이를 유괴하는 따위의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일들로 다시는 우리를 놀라게 하지않도록 사회질서를 바로잡는일…이러한 일 다 시급하고 근본적인 일들을 해결 하는데 쓰여 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지난 여름 그렇게 아우성[illegible]던 무우·배추가 半年도 채[illegible]가서 지천으로 갈리게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김치가[illegible]치가 되고 이제는 ○치가 되[illegible]다고 들 하지 않는가。

◇朴同門

머슴이 단지 고추농사를 잘 지었다고、주인이 감독을 소홀하였다고 그렇게 까지 야단일은 없을성 싶다。매스컴이 그렇게 까지 떠들것도 없을것같다。바다 건너 저 머얼리 南美에까지 들여올것도 없을것 갈다。풍랑에 맞아 바다물에 잠기도

學科	定員	必須	選擇
佛敎學科	四〇	[illegible]	[illegible]
國語國文學科	四〇	國語(Ⅰ)·數學(Ⅱ)·英語	國史·數學(Ⅰ) 擇一
英語英文學科	四〇		
日語日文學科	四〇		
經營學科	四〇		
貿易學科	四〇		
會計學科	四〇		
[illegible]	四〇	實技	

二、지원절차·전형기간

㉮ 전형기간 [illegible] 1979년1월17일(水) [illegible] 1979년1월22일(月)

㉯ 원서교부·접수 [illegible]

三、전형방법

입학시험은 예비고사성적 10%를 가산(53%반영)하여 전형한다. (미술학과는 실기와 예비고사성적으로만 전형한다)

四、특별전형

[illegible]

五、예비고사 성적우수자 특별무시험 전형

구분	서울본교	경주대학
모집인원	전학과 20%(예체능계제외)	전학과 20%(예체능계제외)
원서교부·접수	79년1월2일(火)~2월3일(土)	79년1월2일(火)~1월12일(金)
1차합격자발표	[illegible]	1979년1월13일(土)
면접	1979년2월8일(木)	1979년1월17일(水)
2차합격자발표	1979년2월17일(土)	1979년1월22일(月)
구비서류	①지원서 1통 ②본교소정양식 ③학교장 추천서 1통 ④고교생활기록부 1통	②예비고사성적 원본 1통
특전	장학금 특별혜택 [illegible]	
비고	특별무시험 불합격자는 [illegible] 필답고사에 응시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것은 本大學校 敎務課(☎)8150로 문의바람

東國大學校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26번지
☎ 813-5~9 ☎ 814-1~5

慶州에 펼칠 東國의 靑寫眞

母校는 72個星霜校史를 가진 傳統과 底力을기반으로 이제 慶州大學 新設의 역사적인 中興期를 맞았다。文敎部로부터 慶州分校認可를 받은지 1個月남짓ㅣ。모교當局은 이와관련、1979學年度 新入生모집을 前期로 확정하는한편、부수된行政機構와 建設本部를 마련、구체적인 전설작업에 착수했다。新羅文化의 發祥地인 古都경주에 母校의 分校가 설립케된것은 建學理念과 民族文化의 原流로서의 慶州文化圈과는 佛敎를 공통의 기반으로 하는 不可分의 정신적유대를 갖고 있다는데서 意義가크다。즉 경주大學設立은 단순한 母校의 外的확장이상으로 民族文化史的意義를 갑안한 숭고한 決心의 所産이다。鄭在覺總長은 慶州大學을 東大分身이라기 보다는「차라리 東大自身이라고 보는것」이 옳을지 모른다고 精神的맥락관계를 천명하고 있다。앞으로 慶州大學은『新羅文化의 傳統性을 創造的으로 계승발전시키는民族文化發展의 요람』이될것이 확실하다。慶州大學 전설문제를 주요안전으로 하여 열린 學校法人東國學院 理事會는 建設本部·學事機構의 편제 및 인사문제등을 總長에게 委任한 바있다。

▲東國의 理想이 실현될 雄壯한 모습의 慶州分校鳥瞰圖、

◇경주권고등학교의 卒業生進學狀況

통학거리	구분 지역	학교수	77학년도			
			진학희망자수	예비고사합격자수	진학자수	미진학자수
	총계	55	4,367	2,559	788	1,717
통학권	소계	39	3,749	2,321	710	1,611
	경주지역	8	1,460	888	310	578
	월성지역	5	102	33	6	27
	포항지역	8	1,084	655	170	485
	영일지역	2	40	16	4	12
	영천지역	6	312	138	28	110
	울산지역	6	726	584	188	396
	울주지역	4	25	7	4	3
인접지역	소계	16	618	238	78	160
	영덕지역	5	233	77	29	48
	울진지역	6	205	85	22	63
	청송지여	5	180	76	27	49

새 大學文化圈 形成

建設委 설치등 活氣

◇各種機構등설치

모교 當局은 慶州大學 신설에 따른 機構로서 學長을 필두로 하여 事務課와 事務係를 두고 그 아래에 敎務學籍담당、학생담당、서무회계 담당을 두었다。

또한 慶州大學건설에 따른 의결기구로는 建設委員會를 두고 理事長을 고문으로、總長을 委員長으로 각각 위촉했으며 委員은 財團이사진과 교수로 구성하였다。또한 전설본부는 總長산하에 本部長을 두고 그 밑에는 建設課와 建設係를 두었다。전설계에는 일반서무와 施工監督을 두도록 했다。이 建設위원회는 慶州大學전설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同전설이 完了될 때까지 존속、大學 전설의 사령탑이 될 것이다。

◇校地買入단계

慶州大學 建設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곳은 ①慶州市界 접경지인 月城군 見谷面 金丈里 일대 18만평과 ②乾川邑 花川洞 15만평 ③慶州市 東川洞 12만평인데 그 중 花川洞과 東川洞은 地主들이 喜捨意思를 표명하여 지리적 조건을 전문가들이 검토중이다。모교당국은 金丈里일대 후보지의 地主協助가 부진할 경우 學校當局은 현재 제2、제3후보지중 어느 하나를 慶州大교지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

모교당국에서 金丈里일대를 校地의 제1후보지로 정한 것은 慶州市 중심가에서 불과 2km밖에 안되면서도 教育用地로서 적합한 自然景觀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建設本部는 1차 4개년 계획을 세워 현재 진행중인 校地買入문제가 完結되는데로 建設委員會서 확정된 계획에 따라 年次的인 전설을 추진、79學年度에 모집하는 신입생들이 졸업할 무렵인 4年후를 1次 完成年度로 잡고 있다。우선 시설規模를 보면 垈地(造景工事포함) 10만평위에 현대식 전물(講堂、圖書館、기타 전물포함) 1만평을 전축하고 體育場으로 7천평을 확보할 계획이다。

4개년계획으로 추진될 이러한 전설은 우선 1차년도인 79년에 3만2천평 규모의 垈地造成과 3천2백평규모의 전물、그리고 4천평규모의 體育場을 전설케 된다。26억4천만원의 1차년도 총예산을 비롯、4차년도인 完成年度까지 백억원규모의 建設資金이 투입케될 전망이다。한편 1차년도 전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난 20日 財團理事會를 통과한 바 있다다。

民族文化발전의 요람되게

15萬坪내외 校地買入 서둘러

明年부터 新入生 4백명 前期모집

◇臨時校舍서 우선開講

慶州大의 校舍들은 전통적인 양식을 가미한 현대식 설계가 검토되고있다。캠퍼스는 매우 쾌적하고·아늑한 분위기가되어 면학풍토의 최적조건을 구비하도록 한다。다만 건축시공상의 期間이있어 1979年에 모집하는 신입생은 임시 校舍에서 개교하게 된다。따라서 현재 경주대학의 임시교사로서 慶州高等學校의 신축건물을 사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모교 著名敎授 파견ㅡ教育內容등 內實에 萬全

建設計劃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교육계획수립에도 주력하고 있다。여기에는 이지방의 역사적·지리적 특성을 감안 人文·社會·醫學 분야의敎育과 研究에 치중케 하여 民族文化의 요람이되게 한다。

慶州大學의 신입생 모집요강도 이미 확정했는데 입시시기는前期이다。이미 우수한 학생들에게 진학의 기회를 부여하여 보다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역군이 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

教授陣은 母校의 著名敎授를 파견및 순환 근무케 될 것이다。당국은 이미 5명의 본교 저명교수를 선정 상주케 하여 교육과 學生活動등을 지도케 할것을 확정한바있다。

◇前期入試ㅡ特別無試驗전형도

慶州大學의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다음과 갈다。원서교부및 접수를 12月28日부터 79年1月15日까지 慶州大學 임시교사(慶州高校)와 서울本校에서 각각 실시케 된다。

입학시험성적에는 대학예비고사성적 1백%를가산(53%반영)하여 전형케 된다。특히 예비고사성적이 우수한자는 특별 무시험전형을 하는데 전학과에 걸쳐 20%(예체능계 제외)나 된다。원서교부및 접수는 79년1月6日부터12일까지이며、1차합격자 발표는 1월13일(土)이다。또한 17日(水)에는 면접이 실시될 예정이며22日(日)에 최종적으로 2次합격자를 발표한다。다만 특별무시험전형에 불합격자는 무시험원서의 필답고사희망란에 미리 표시하면 전형 없이도 필답고사에 응시 할 수 있도록했다。

입학 및 재학시의 성적우수자에게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慶州문화권의 片貌

文化遺跡 풍부한 觀光地

慶州市

대구동쪽 55km、신라의 古都 경주는 慶北의 東南部 月城郡의 중앙에위치하고 있다。

경주외곽지대를 보면 동북으로는 兄山江의 帶狀平野가 영일만까지、동남으로는 東川을낀 地溝帶平野가 蔚山灣에 이어진다。

이광활한 평야는 南으로 울산만에 달하는 東川地溝帶(兄山江지구대의 연장)와 낙동江口에서 梁山川谷이 일직선으로 달려 彦陽·慶州부근을 지난다。다시 그것은 영일만에 달하는 2개의 地體構造線이 교차、그지점에 발달한 佛國寺統에에 속하는 화강암의 침식분에 연결된된다。

하천은 市內남쪽의 西川、半月城의 북측에서흘러내리는 南川과 明活山부근에서 흘러내리는 北川을 합하여 북쪽으로 兄山·佛國의 협곡을 지나 형산강이되어 영일만으로 들어간다。慶州市街는 이들강에 의해 퇴적한 사적층에 발달되어있다。

경주시가지는 이들 3개의 하천외에 동에는明活山、남에는 금오산、북에는 小金剛이 세경기의 시내를 둘러싸서 분지를 만들고 있다。

동해안에 비교적 가까와 겨울에는 온난기후를 보이는 반면、여름에는 몹시 더워 한국의 最極暑지대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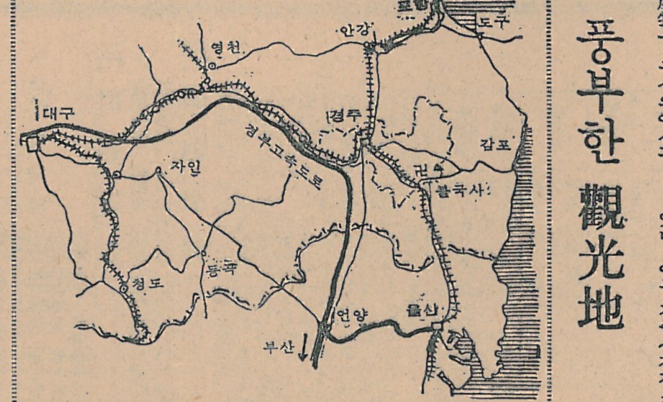
1955년도에 市로 승격된 이래 관광지로서 세계에 알려진 경주시의 현재인구는 13만명。

취업인구 5만6천명중 농업이71%、제조업3% 외에 서비스部門이 [illegible]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지로서의 지위가 높은것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은 도시근교農業과 축산이 발달되었다。主産物은 곡식외에사과·인삼등이며 잡단·양조(法酒)製麵·鍮器등이 유명하다。

교통편은 浦項線에 의해 포항으로는、中央線에 의해 永川·安東을 거쳐 서울에 이르며、영천을 거쳐 대구에서 경부선에 접속、부산은 동해남부선에 의해 연결된다。또 産業·관광도로가 정비되어 교통은 지극히 편리하다。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시의 서쪽을 지나고 있어 慶州大의 통학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경주부근의 문화재 분포는 대체로 남산 일대는 사찰、석탑、석불、왕릉、고분등이 있고 토함산 증턱에 불국사、석굴암이 있다。또 西岳에는 武烈王陵과 김유신묘、金丈里와 明活山 일대에 고분군이 집중적으로 산재해 있다。이는 경주시가가 三國을 통일한 新羅의 原泉을 보게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경주시의 교육기관으로는 현재 중·고등학교 16개、국민교11개가 있으며 慶州大學이 新設됨으로써 명실공히 교육도시로서 면목을 갖추게 된다。



蔚山·浦項등지 高校55개

永川

대구·경주간의 교통요지를 차지하고있으며 영천을 중심으로 도로망이 방사선으로 뻗어 도내에서는 대구 다음으로 교통망이 편리하다。경주에서32km、시외버스로 40분이면 진입할수있다。취업인구 90%(15만2천)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교육기관으로는 중고등학교 6개교가 郡전체에산재해있다。

蔚山市

慶州에서 36km지점、버스로 50分、택시로 30分거리인 경남의 동북부울산만에 發達한 신흥공업도시。특정공업지역으로 지정된후 67년에는 12만2천、70년에는 15만9천으로 서울 다음의 인구증가를 보여왔다。

동해남부선이 통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며 국내항공선이 취항하고 있다。국도와 기타 도로망도 발달、수륙교통 모두 便利하다。

浦項市

포항은 영일만연안 경상북도의 동쪽 관문이자 수산및 공업도시이다。

이조말까지는 포항동이라는 한 작은 어촌이였다가 1949年에 市로、1962年에 개항장으로 승격되었다。인구도 1955년에는 5만에 지나지 않았던것이 67년에는 6만여、70년에는 7만9천으로 급충하였다。

동해남부선과 중앙선이 있어 대구·경주·원주·서울로 통하고 간선도로망이 해안과 내륙으로 뻗어 있다。경주까지의 거리는 32km로 시외버스로 40~50分、택시로 20~30분이면 도착할수 있다。

교육시설은 포항수산초급대학을 비롯하여 기술학교 중고등학교 13개가있다。

慶州대학 機構발족등 開校작업한창

教職員 人事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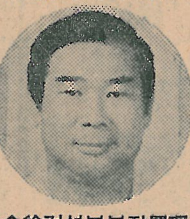
既存기구 統·廢合

慶州大學長代理 金秉玉 박사

建設本部長署理 徐載根 박사

학교법인 東國學院理事會는 鄭在覺총장이 제청한 新設 慶州大學長직무대리에 金秉玉(교양학무장)교수를、건설본부장서리에 徐載根(법정대)교수를 각각 승인 임명했다。한편 이와함께 鄭총장은 직원 16명에대한 인사이동도 실시했다。이번 인사이동은 경주대학신설에 따라 경주대학이 독자적으로 운영될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로서 既存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다。

◇金경주대학장代理



◇徐건설본부장署理

「불요 불급한 일부기관의 統·廢合、축소」가 그 특징으로 드러나고있는 이번 인사이동의 특징은 교양학부 직원이 전원 전출됨으로써 종전의 교양학부사무가 각각 교무과와 학적과등으로 이관되었다는점이며、전폭적인 인사이동은 내년초에 시행될 것으로보인다。

그밖에도 學術部 역경원 도서관 지도과 정각원등에서도 각각 1명씩 減員되었다。한편 신설기구인「경주대학 건설본부」는 총장직속기구로서 경주 캠퍼스 건설에 관한 제반사무를맡게되었는데 건설과및 건설계로 구성되어 건설계에서는 일반서무및 시공감독을 담당하게된다。

교직원 인사이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教員 人事◇

▲金秉玉(사범대)교양학부장=命慶州大學長직무대리

▲徐載根(법정대교수)=命 경주대학 建設本部長서리

◇職員 人事◇

▲朴秀根(기획과장)=命경주대학 사무과장

▲朴東琪(교양학부 교학주임)=命 경주대학 사무주임

▲權五鉉(정각원)=命경주대학 사무과

▲河정윤(교무과)=〃

▲黃來烈(지도과)=〃

▲崔榮峻(교양학부 교학과장)=命 경주대학 건설본부 건설과장

▲李根鎬(도서관 서무주임)=命 경주대학 건설본부 건설주임

▲任奎彬(역경원)=命경주대학 건설본부 건설과

▲趙在浩(지도주임)=命총무주임

▲黃永洙(2부교학주임)=命 지도주임

▲柳豐雲(학적주임)=命2부교학주임

▲許壯敏(학적과)=命학적주임

▲宣相圭(학술부)=命지도과

▲李鍾錫(지도과)=命교무과

▲張慶珉(과학관)=命실험농장

▲李丙天(실험농장)=命과학관

〈以上16名 11月23日字〉

慶州圈 學術講演會 성료

「産業社會와 傳統文化」 심포지움도

제3회 全國巡廻학술강연회가 지난 29·30 양일간 慶州를 비롯한 蔚山 浦項·永川등 4개지역에서 성황리에 열려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東國의 建學傳統과 理想을 일깨워주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慶州 코오롱호텔에서 「産業사회와 傳統文化」란 주제로 경주大學 신설기념 學術심포지움도 베풀었는데 徐廷柱 張源宗 李箕永교수등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었다。

이번 학술강연회는 29일 慶州·蔚山、30일 浦項·永川에서 동시에 열려 東國이 指向 해온「大學文化창달」과「민족의 大學」이라는 긍지를 慶州文化圈에서 드높혔다。

한편 이번 강연회에 동원된 청중을 보면 慶州 1천4백명、蔚山 1천5백명、浦項1천2백명、永川6백명등 5천여명이었으며 浦項대동고등학교장 김현호동문은 演士·강연회任員및 同門에게 오찬을 베풀어 同강연회가 성공리에 끝난것을 自祝하기도했다。

◇심포지움(28일·경주코오롱호텔)=주제·産業社會와 傳統문화

▲徐廷柱(문리대학장)=「東西洋의 精神문화」

▲張源宗(경상대학장)=「産業社會속의 傳統」文化의 역할

▲李箕永(불교대교수)=「佛教文化의 傳統과 그 現代的 照明」

▲討論참가자=黃壽永 韓相範 이식우 이성우 김현호 권오찬 김호식氏등。

◇講演會일정및 演士

▲慶州=11月29日 오후6時、경주文化高校강당〈徐廷柱、洪庭植〉

▲蔚山=11月29日正午 학성高校강당 〈李丙疇、朴昌三〉

▲浦項=11月30日 오후6시、포항시민회관〈徐廷柱、吳國根〉

▲永川=11月30日오후6시 永川문화원 〈張庚鶴、洪起三〉

◇盛況이룬 학술강연회 광경。(慶州)

放射性 中性子源 도입

國內두번째로 理工系 실험研究에 活用

母校 理工系 시설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材料科學研究所(소장職代=洪致裕)에서는 I·A·E·A(國際原子力機構)에서 기증한 켈리포늄(CF252)中性子源을 지난 17일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된 켈리포늄은 그 中性子의 강한 투과작용을 이용해 중성자의 照射로 재질의 결함여부、미량 질량의 측정(비파괴검사、放射化 分析)유전학연구、중성자 물리치료、품종개량、지하자원의 탐사등에 쓰여진다。

또한 이 核種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성시키는 점에서 소형 원자로와 같은 기능을 하나 사용이 간편해 文理大·農大·工大 各科의 광범한 教育및 방사성 實驗 研究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번 켈리포늄 도입은지난 76년 科學技術研究處로부터 導入計劃을 認可받은 母校가 올해 同處의 차페시설 승인을 거쳐 한국에서는 서울공대에 이어 두번째로 도입한 것인데 이 核種은 미량(0·2미리큐리)으로도 약 2년8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학교당국은 이 核種의효율적 이용을 위해 계측용 측정장치、연관 기재의 設備등을 대거 지원할 方針이다。

이 방침의 일환으로 학교당국은 지난달에 材料科學研究室(科學館 地下·28평규모)에 40cm 두께의 콘크리트 차페벽시설을 한바있다。

東岳語文學會

研究발표회가져

東岳語文學會(회장=李丙疇)연구발표회가 지난11일(土) 오후3시 大學院A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발표자및 주제

▲李鍾殷(한양대교수)=國文學에 나타난 道敎思想

▲文永午=尹孤山의人生觀

▲金甲起(安養工專전임강사)=擬謠해석의 一方法論。

모교圖書館에 寄贈

故金熙圭博士 所藏書

지난7일 故 金熙圭(前 文理大교수) 박사가 所藏해온 「電子回路」등 도서 7백46권이 金박사의 유족에의해 모교 圖書館(관장=洪庭植)에 기증되었다。

단행본 2백45권、逐刊書 62종 4백60권등 物理學分野專攻書를 기증받은 모교당국은 지난17일 총장실에서 金박사의 유족에게 감사패를 증정코 고마움을 表示했다。

축구、서울市廳격파

전국선수권대회서

모교 축구부는 지난19일 실업·대학팀을 총망라한 제33회 전국축구선수권대회 9일째경기에서 실업팀의 강호 서울市廳을 3대1로 격파、기염을 토해 8强에 진출했으나 준준결승서 同대회 우승팀인 國民銀行에 1대0으로 석패하고 말았다。

모교팀은 서울市廳팀과의 대전에서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금년도 전국체전우승·실업축구춘우승 캐리어를 갖고있는 서울市廳을 맞아 선제골을 허용한 뒤、김용덕 金永福 金世一이 차례로 득점、오랫만에 통쾌한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建設研究委 위촉

慶州大 建築·造景등자문

鄭在覺총장은 總長자문기관으로서「慶州大學건설研究委員會」를 非常設기구로두기로하고 지난3일 同委員을 위촉했는데 위원장에吉正天(建築科)부위원장에裵鍾根(企劃室長)교수를 각각 任命했다。

慶州大學 건설(건축·土木·造景)에 따른 건축설계의 評價審議및 종합계획안마련을 목적으로하는 同위원회는 專門的 技術的인 분야의 자문기구로서 그機能은 ①건축설계의 評價및심의 ②綜合計劃案연구 ③建設모형연구 ④기타건설에 필요한 연구등을 통하여總長을 보좌하게된다。

▲委員長=吉正天 ▲副委員長=裵鍾根 ▲委員=李文輸(건축과)李珉燮(〃)金圭石(〃)정경운(〃)權鎭東「土木科」南宣祐(〃)서원우(조경과)黃壽永(대학원장) ▲간사=朴秀根(기획과장)。

技術考試2차

鄭一錄군 合格

總務處에서 지난28일 발표한 제14회 技術高等考試 2차시험에 母校에서는 鄭一錄(電氣4)군이 電氣職에 합격했다。

이번에 발표한 技術考試는 총93명이 합격했는데、전기직의 경우는 10명만이 합격되었었다。

行試2次 14명

趙武熙동문등이 合格

지난 14일 발표된 總務處시행 제22회 行政考試2차시험에 趙武熙(66法學科卒)동문등 卒業生·大學院生등 총14명이 합격했다。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 同시험에는 총48명이 응시、14명이 대거 합격했다。

▲趙武熙(66·法科卒)▲朴益洙(行大院·2)▲정유섭(〃·〃)▲禹柄翊(〃·1)▲李勝鍾(〃·〃)▲宋在楨(〃·〃)▲이용기(〃·〃)▲이상용(〃·〃)▲허병익(〃·〃)▲안응린(〃·〃)▲장원순(〃·〃)▲이상복(〃·〃)▲배태수(〃·〃)▲김창환(〃·〃)。

아시언게임 東國人8명참가

金俊岩교수 女子監督으로

오는 12月9日 泰國「방콕」에서 개막되는 제8회「아시안게임」에 모교 金俊岩(體教科)교수가 여자감독으로 활약하는등 본부임원1、심판1、코취2、선수4명이 東國과 祖國의명예를 걸고 同大會에 참가하게 되었다。

지난27일 同결단식을갖고 오는 12月2日 장도에 오르게 되는 東國人들은 다음과 같다。

◇任員및코취

▲여자감독=金俊岩(體敎科교수)

▲체조심판=金尚民(〃)

▲레슬링코취=金益鍾(66經濟·대한주택공사)、張鎬成(69農學·한국체육관)

◇選手名單

▲복싱=黃哲淳(警行3·밴텀급)

▲레슬링=金和經(73貿易·쥬니어플라이급)、李庚哲(78法·웰터급)、金鍾圭(體教3·플라이급)

79학년도 學事日程 발표

7일부터 放學 학위수여식 2월24일로

오는 12월7일부터 동계방학에 들어가 78학년도의 모든 학사일정을 마침에 따라 교무처(처장=李昌培박사)에서는 79학년도 제1학기학사일정및 학위수여식 일정을확정、발표했다。

이번 교무처 발표에 따르면、78학년도 학위수여식은 내년 2월24일(土)에 실시되며、79학년도 제1학기 개학은 2월26일、수강신청카드교부는 26·27일、등록접수는 27·28양일간에 걸쳐 있게된다。

한편 교련수업은 개학과 동시에 1주일 앞당겨 개강하고、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3월5일부터는 새학기開講에 들어가게된다。

◇79학년도 第1학기 學事日程

▲78학년도학위수여식=2월24일 (土)

▲開學=2월26일 (月)〈교련수업은 개학과 동시에 개강〉

▲수강신청카드 교부=26 (月)、27 (火) 양일간 (2학년=2월26일、3·4학년=2월27일)

▲등록=27 (火)、28 (水)양일간 (1·2학년=2월27일、3·4학년=2월28일)

▲수강신청카드 접수=3월2·3양일간 (各科主任教授)

▲開講=3월5일 (月)

年會費 납부자 名單

▲李成用(61·政治)=3,000원
▲金貞煥(60·국문)= 〃
▲고재찬(73·무역)= 〃
▲이희범(75·행원)= 〃
▲李根陽(52·政治)= 〃
▲吳哲求(53·政治)= 〃
▲李秀澤(75·행원)= 〃
▲沈燦燮(70·행원)= 〃
▲朴濟吉(49·專門)= 〃
▲劉演鎭(52·政治)= 〃
▲楊秀成(65·經營)= 〃
▲曺武成(64·經濟)= 〃
▲林鍾元(61·經濟)= 〃
▲박갑순( )= 〃
▲신영철(국)= 〃
▲黃仲圭(57·농학)= 〃
▲申聖淑(61·英文)= 〃
▲金仁煥(58·政治)= 〃
▲徐錫九(63·法學)= 〃
▲高日燮(49·專門)= 〃
▲安澈燮(52·經濟)= 〃
▲윤인효( )= 〃
▲朴恩會(60·英文)= 〃

□協成女商東友會

▲이희천(65·史學)=3,000원
▲신용균(64·法學)= 〃
▲김의성(65·法學)= 〃
▲김덕영(65·行政)= 〃
▲이주영(72·史學)= 〃
▲이기운(74·數教)= 〃
▲반의환(75·英文)= 〃
▲한춘호(78·數學)= 〃
▲이명규(74·數學)= 〃
▲이미자(67·國文)= 〃
▲김경선(69·國文)= 〃
▲임화순(70·英文)= 〃
▲이혜순(74·科教)= 〃
▲이선희(76·統計)= 〃

理事會費 납부자 名單

▲朴永基(60·영문)=20,000원
▲尹東燮(61·史學)= 〃

永久不變 同窓會
萬古成長 東國人

새東國人像 정립을 위해 各種會費의 精誠을 모읍시다

□年會費=1人當3,000원
□理事會費=年20,000원以上
□永久會費=1人當30,000원以上
□常務理事會費=年50,000원以上

◇납부처=本會사무국(서울中區筆洞 3가26東國大學校同窓會)

◇납부방법=本社사무국으로 直接납부 또는 電話連絡(267—8568)주시면 來訪하겠으며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로 拂入하셔도 됩니다(대체구좌용지는 每신문발송시 同封하고있음)

◇이미 各種會費를 納付하여 주신 同門들에게 感謝드립니다

拔群의 名門私學 자랑하는 佛陀精神의 教育道場

青潭中·商業高等學校 理事長 이혜성 동문

平澤에서 南西쪽으로 6㎞쯤가면 평성면 남산리에 우뚝솟은 부용산이 보인다。불과 몇년전까지지해도 不實學校의 낙인이 찍힌 평성中學校자리에 青潭中·商業高等學校가 부용산 기슭에 學問의 雄志를 장엄하게 펼쳐가고있다。폐허의 자리에 용기가 충만하고、無知의 허공은 學問의 殿堂으로 채워졌다。京畿道內는 물론 全國유수 學園으로서의 「青潭學園」의 成長은 오로지 理事長 李慧성(64佛教) 同門의 高德과 意志의 結晶이었다。

◇李혜성理事長

◇彭城中學을 인수코 再建

평소 學校教育을 중시한 先師 青潭大宗師의 높은 뜻을 받들어 李慧성 동문은 民族的次元의 教育熱로써 先師의 法名을 따서 평성中學校를 青潭中學校로 改名하는 同時에 청담스님을 同校의 校祖로 모셨다。

74년8月 평택군평성면 소재 舊평성중학을 인수후 75년에는 高等學校設立 인가를 얻어 명실상부한 中·高 學園규모를 자랑하게 되었다。

中學校 2천1백명、高等學校 6백명에 教職員數만도 67명이다。中學校 運動場 7천여평、高校운동장은 1만여평씩이나되며 우리 同門교직원만도 20여명이다。

人間性개발교육에 重點

同校의 校訓은「慈悲無敵」「精進不退」「智慧光明」으로서 청담스님의 論示이다。

또한 李慧성동문은 教育理念으로 慈悲·精進·智慧를 내세우고 있다。德性教育을 통한 人間美 풍부한 人間性啓發、올바른 일에 노력하는 人間形成、항상 眞理를 탐구하는 人間像의 定立이바로 그것이라고 한다。

平澤地域은 6·25이후 많은 美軍이 주둔해온관계로 지역주민들의 사고방식도 언제부터인가 脫東洋化한 지역이 他地에 비해 많은 편이다。基督教、가톨릭 信者가 많은 반면에 佛教信者가 적은 것이 간접적으로 그러한 現象을 대변해 준다。그래서인지 평택군내 學校중 基督、가톨릭系 學校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다고한다。

『全學生들이 자연스럽게 佛教的인 분위기를 호흡할수있도록 지난 76년에는 校庭에 佛像을 세웠죠』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가리키며 李同門은 말한다。佛像은 도선寺 信徒들의 誠金에 의해 건립되었다。

李同門은「宗教와 教育은 不可分의것」이라는 自身의 신념을 하나 하나 구체화시키고있다。清潭中高가 名門私立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마련키위해서 실력있는 教師陣의확보、풍부한 獎學金의 지급、우수학생 육성、체력단련을위한 체육부의 육성등 4년의 歷史로서는 감히 現實키어려운 위업을 척척 순조롭게 해나가고있다。細部指針에 대한 方案으로서『첫째 두뇌가 우수하고 체력이 뛰어난 노력파를 선발하여 中·高등록금 전액면제뿐아니라 大學4年間의 學費도 전액 부담해주며 둘째、이 장학생들을 佛教界의 간성은물론 社會에 기여할수있는 人才로까지 이끌수 있도록』하겠다고 李同門의 實弟이자 同校 부교장겸 기획실장인 李根佑(70行碩) 동문이 힘주어 앞으로의 계획등을 털어놓는다。

慈悲·精進·智慧를 教訓삼아

在職동문20여명、明年부터 綜合高校로

新生校로 多方面에 급성장

◇獎學혜택擴充도 구상중

현재 中·高 2천7백명중 장학혜택 수혜자만 모두 20%에달하고있다。

男·女共學인 이학교는 이밖에도 新生校답지않은 많은면모를 보이고있다。축구、탁구、육상부의 괄목할만한 成績、年1回의 校誌 刊行、學校新聞의 발간、98%에 달하는 高校卒業生들의 就業率이 그것들이다。

學校는 地域社會와 맥박을 함께할때 發展은 약속될수 있는것。그래서 李同門은 일부 지역민들의 近視眼的思考를 점진적으로 계몽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라고 지적한다。社會福祉事業의 일환으로 시흥에 慧明保育院을 건립 완료했고、佛教양로원을 신축중에 있다。한편 平澤郡은 물론 인근지역에서는 가장 큰規模의 大運動場이 지난10월末에 完工、1만평에 달하는 웅장한모습을 드러내었다。

佛教가 지역민의 생활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지름길일수도 있지만 첫재는『社會福祉증진이야말로 佛教가 社會에서 담당해야하는 責任이 아니겠느냐』고 社會事業취지를 털어놓는 李同門、이밖에도 인근지역 주둔美軍部隊와의 민활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다。지역주둔 軍隊라는 이미지를 넘어서「韓·美유대라는 巨視的次元의 뜻을 바탕으로 한다고。

◇눈부신發展거듭

青潭中·商高 佛教學生會를 주축으로한 양로원 보육원·군부대 위문은 팽성중학교를 인수할 당시「너희들인들 별수있겠느냐」式의 주민들의 사고방식을 友好的이고 적극적인 方向으로 전환시키는데 큰효과를 가져다주고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一次同次의 함수관계인것。밀린 負債에 짓눌려 기진맥진하던 학교가 불과4년만에 京畿道內의 名門私立으로 浮上했다는 기적과 같은 現實—青潭大先師의 社會靜化의 거룩한뜻이 青潭學院을 기점으로 全國에 퍼져가고 있다。

『每週土요일에 열리는 法會와 校庭전체에서 스며드는 부처님의 미소로 學生들은 佛心을 깨닫기 시작하고 平澤지역 민들의 편견은 차츰 바로 잡혀가고있다』 평택교육장등 50년간을 이곳에서 교육봉사해온 평택佛教信徒會 會長이며 青潭中·商高 校長인 朴南圭씨는 말한다。

오는79년부터 農·工·商의 포괄적 교육을위해서 종합고등학교로 개편하게 되는 青潭學院은 오늘의 發展을 장차 專門大學내지 單科大學까지의 育成의욕에 가득 차있다。

◇李同門의 프로필 ▲57년、入山 青潭스님 法弟子 ▲64년、佛教科卒 ▲67년、母校大學院卒 ▲71년、母校大學院博士課程수료 ▲76년、스리랑카國立大學서 名譽哲學博士學位받음 ▲母校佛教大강사 ▲道洗寺주지 ▲혜명보육원 理事長 青潭學園이사장 ◇著書=「慈悲無敵」「이마음에 光明을」「佛教說話文學全集」外논문多數。

◇青潭學園에 在職중인 동문들의名單

姓 名	卒業區分	職 位
禹敬培	72行研	財團 상무이사
李根佑	70行碩	副校長겸 企劃室長
차동강	73行研	교학실장
정수영	74佛教	교학과장
김덕규	71農學	교무과장
김수환	70商學	학생과장
유인식	76佛教	윤리과장
이근엽	73行研	서무과장
김홍덕	75體教	교 사
노창현	71農學	〃
백승구	57政治	〃
변용지	71行政	〃
서정옥	76國文	〃
심정순	76社教	〃
오동석	78數教	〃
윤화석	75物理	〃
정길자	75物學	〃
정미연	77國文	〃
정혜영	75佛理	〃
조성구	76數教	〃

겨울

朴 晨 燮

어둠을·燒紙 살라 먹으며
손뼘만한 콘크리트 마당에
겨울 빗물은 떨어진다。

춤추는 박수의 칼날처럼
섬짓한 빗물을
우리집 울타리의 참새는
후두둑 털었다。

잿물같은 구름 뒤에
해와 달과 별이 그림자를 잃고
하얗게 바래져 있을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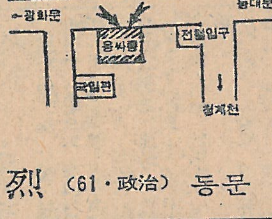
우리집 손뼘만한 콘크리트 마당
한쪽 귀퉁이에 묻어논 김장독 옆에
이미 늙어 파묻힌 가이의 눈알이
안방을 건너다보며 컹컹 짖는다。
구공탄 난로의 연통에서는

옛날 자동차의 꽁무니 윗쪽에서
뿜어대던 숯연기가 보글보글 오르고
나는、뒤로 뒤로 달음질치던
전깃줄에 앉은 참새들을 생각한다。

장작을 가득 실은 도락구 운전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체온을 쪼이던
창밖의 빗물을 생각한다。

툭툭 뿌리는 빗물은
우리집 동침이독과 참새등을 타고
미끄럼질을 친다。
하늘은 燒紙 살라 먹으며
주사위는 여섯점을 꼬나 놓는데
참새는 얼어붙은 빗물을 후두둑 털고
지붕을 파고든다。
그리하여
겨울의 하루는 점점 깊어간다。

◇本名=朴璡燮 ▲58年 國文科 卒業 ▲現在 城東女實高在職 ▲韓國文人協會會員 ▲忠北文學人協會會員
◇著書=詩集『대보름』



在學生·教職員·同門에게
파격적 特別奉仕!

龍
슈즈싸롱
DRAGON
☎ 267—5424
대표 李成烈 (61·政治) 동문

東國의 맥박이 世界속에 뛴다

未堂세계一周旅行記 徐廷柱

東國의 힘 — 큰 바위처럼 돌출

武人아닌 名士대접받는 同門

愛國歌로 시작되는 태권도 감명

태권도를 통해 어떤 기량(육체적) 보다 정신적수련을 중요시 했기 때문에 그들의 무술 재능이 호기심과 기술자(?)의 단계를 넘어서 그들의 삶이世界人의 정신적 신뢰와 사랑을 받지 않았나 내 나름대로 생각했다。

확실히 엄숙한 道場에서 외국에서는 듣기조차 아까울 정도의 애국가가 울리고、또렷또렷한 한국 말로 구호를 붙이는 수련생을 대할때 멀고 먼 異國에서 세계 도처에서 우리 同門들의 활동은 눈부신 바라는 얘기는 이미 했다。특히 우리 고유의 武術 태권도를 보급하고 生死一如觀에 입각한 투철한 武道精神과 그들의 삶은 그곳 사람들에의 환영과 신뢰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내가 만난 同門 중에 태권도師範으로 나가있는 同門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기량을 재학시절에 禪武部에서 닦았다고 털어 놓았다。

자라는 한국—아니 東大精神의 위대함과 대견스러움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른다。

미국「시카고」에서 체류중인 법안스님의 안내로만난 南泰熙(49전문·在美중서부동문회장) 同門은 다름아닌 全美國 태권도연맹위원장이다。

美國에서의 태권도勢는 이제 가라데등의 他武術의 세력을 누르고 그곳 사람들의 사랑 속에 점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한다。내가 만난 南同門도단지 武人으로서가 아닌 名士로서의 대접을 받았고 그가 지닌 품위도 결코 그런 예우에 모자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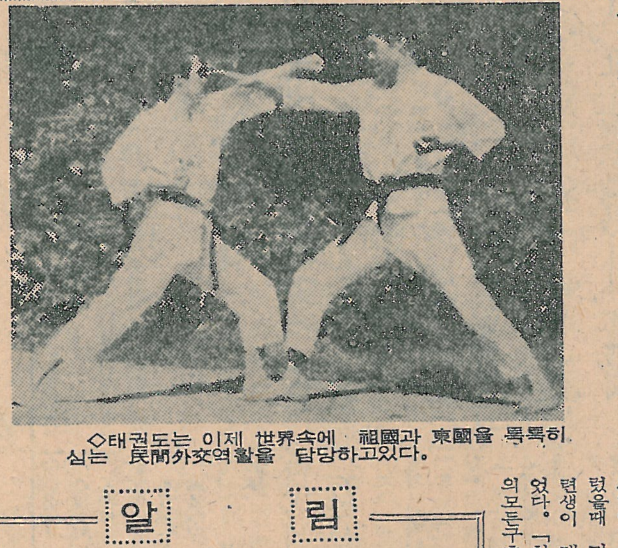
브라질에있는 世界的인美港「리오데자로」에서는 李宇在(경행과 卒)同門을만났다。全브라질 태권도연맹 위원장인 李同門은 헌병학교 교수등의 직책을 맡는 등 바쁘면서도 왕성한 활동을하고 있었다。그와 같이 길을 가는데 마침 순시중이던 경찰간부가 대뜸 李同門을 알아보고 경례를 붙이는데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그는 빈틈없는 생활로 그곳 사람들에게 자자한 칭송과함께 신망을얻고있었다。그의 道場에 들렀을때 마침 1백여명의수련생이 태권도를 익히고있었다。「차려」에서부터 거의모든구호가 우리말이고 그뜻도모를 구호를 외치며 수련에 여념이 없는 수련생들의 진지한 태도에서 나는 새삼감격하고 있었다。

李同門은 이러한 그곳사람들의 신뢰속에 한국의 民間外交의 한몫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아프리카에 들렀을 때는「아이보리·코스트」의「아비잔」에서역시태권도사범으로활약하는同門을 만났다。그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외에도 韓食식당을 경영하고있었다。그도 역시「아이보리·코스트」태권도연맹의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경찰학교 교수직을맡는등 꽤 정열적인 활약을 펼치고있었다。

이외에도 同門들로부터태권도師範으로 활약하는 많은同門들의 이야기는 들었으나 짜여진 여행일정으로 찾아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겨야만했다。

한국고유의 태권도를 우리同門들은 언제그렇게 익혔는지、또한 정신적으로결코 해이하지않은 철저한武道는 어디서 체득했는지생각할수록 대견하다。우리모교 東國大學校의 힘이 세계곳곳에 커다란 바위처럼 돌출해 나타나있는 모양은 자랑스러움을 앞지른 아름다움이었다。그것은 우리동국대학교출신들이 바위를깨트리는 기량을 지녔음에도 꽃처럼 은은한 향기를지니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며 또한 그生命도 길것이라는 점에 의심없다。


◇태권도는 이제 世界속에 祖國과 東國을 톡톡히 심는 民間外交역할을 담당하고있다。

알 림

東友會報는 五萬同門 여러분의 相互交流를 위한 紙上架橋입니다。
①東友會報에 실릴 原稿를 수시 接受합니다 (詩·隨筆·꽁트·論壇·提言·기타)
②同門들의 各種 身上變動事項을 提報바랍니다。(昇進·轉補·就業·結婚·訃音·移轉·開業·出入國·기타近況)
③東友會報는 同門들의 적극적인 協贊으로 成長하고 있읍니다。
◇年會費는 3천원입니다。(個人別 납부 또는 地域·職場·學科·期別등 團體납부 환영)
◇廣告를 게재하실분은 267—8568로 문의바랍니다。
④주위의 同門들께 상호 알리어 東友會報의 빠짐없는 구독을 바랍니다。(졸업년도·學科·주소·직장전화번호·이름등을 明記하여 事務局으로 연락바람)
(267) 8568 (直) (267) 8131~9 (交) 312
東國大學校同窓會